

'고우림♥' 김연아, 물오른 청순 미모

등록 2025.11.10 10:30:04



[서울=뉴시스] 김연아. (사진=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) 2025.11.1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신호령 기자 =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(35)가 근황을 밝혔다.

김연아는 지난 9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"@diorbeauty"라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.

사진 속 김연아는 하얀색 홀터넥 니트를 입고 청순한 매력을 발산했다.

한 명품 브랜드의 파우더와 립스틱을 들고 있는 모습도 공개했다.

반묶음 머리를 한 채 고풍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.

맑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였다.

이를 본 누리꾼들은 "정말 예쁘네요", "아름다워요" 등의 댓글을 올렸다.

한편 김연아는 현역 시절 세계를 호령하는 피겨스케이팅 스타로 활약했다.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(2009년·2013년)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도 세 차례(2006~2007시즌·2007~2008시즌·2009~2010시즌) 우승했다.

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다.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은메달을 차지했다.

같은 해 '올댓스케이팅 아이스 쇼'를 끝으로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다.

김연아는 크로스오버 그룹 '포레스텔라' 멤버 고우림(30)과 3년 교제 끝에 2022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.



[서울=뉴시스] 김연아. (사진=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) 2025.11.1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

[서울=뉴시스] 김연아. (사진=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처) 2025.11.10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©공감언론 뉴시스 snow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